

# 부모가 취학자녀의 TV시청 시간에 미치는 영향 변화 분석

이용관<sup>1)</sup> · 고정원<sup>2)</sup>

## 요약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자원이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성과와 삶의 질이 달라진다. 청소년의 시간사용은 부모의 자원과 결정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한국생활시간조사 3개년(2004, 2009, 2014) 자료를 사용하여 부모가 취학자녀의 TV시청 시간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했다. 토빗 분석 결과, 부모의 행위(자녀 돌보기, TV 시청)가 자녀의 TV시청 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은 축소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아버지의 소득이 자녀의 주말 TV시청 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증대되고 있어 자녀의 시간사용 결정에 아버지의 경제적 지위가 중요해 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가족 구성원의 상호작용을 확대시키려면 다양한 대상을 고려한 시간정책을 통한 가족의 공유시간을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가 자녀의 시간사용 격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녀의 시간사용 결정에 있어 경제적 제약을 완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요용어 : 부모, 취학자녀, TV시청 시간, 자녀돌보기, 사회경제적 지위

## 1. 서론

인간의 삶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은 부모이다. 부모는 다양한 수단과 경로를 활용해 자녀의 행동과 성과를 긍정적으로 유도한다. 특히 청소년들은 부모의 경제·사회·문화 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많은 결정 및 경험 과정도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 최근 한국사회에 부모세대의 불평등 구조가 자녀세대로 이전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일명 ‘금수저, 흙수저’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결정에 있어 부모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가구 규모 축소, 맞벌이 가정 증가, 개인주의적 가치관 확산, 개인미디어 발전 등이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은 축소되고 있다.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에 의하면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은 최근 5년간 약 44분(2009년 171분, 2014년 127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논의들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영향 요인이 변화되고 있음 보여준다.

지금까지 부모의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한 것은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

1) 교신저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 15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E-mail: lucasie@kcti.re.kr

2)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 15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촉연구원. E-mail: gojudith@kcti.re.kr

사회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성적, 소득, 직업 등의 성과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한 것들이다. 자녀의 성과는 장시간 행위가 축적되면서 나타난 결과라는 측면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는데 있어 자녀의 특정 행위가 고려되기 시작했다. 최근 행위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보면 주로 시간자료를 사용하는데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하루 24시간으로 동등하게 주어지는 자원이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성과와 삶의 질이 달라지고(Robinson, 1996), 다른 사람에게 이전 불가능한 자원이기 때문이다(이용관, 2016). 또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영향 경로를 보면 부모가 가진 자원을 자녀에게 이전시켜 자녀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절대적인 크기를 증대시키는 것과 부모가 자녀가 가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혼재되어 있다.<sup>3)</sup> 특히 부모가 자녀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부모의 결정이 자녀의 결정으로 이전되는 현상(Lundberg et al., 2009)이 강화되고, 행위의 상관성(Calvo ´-Armengol and Jackson, 2009)이 커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어 자녀 행위를 분석하는데 있어 부모의 행위도 고려되어야 한다.

자녀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영향을 받으므로(Merton, 1936; Volland, 2012) 자녀의 시간사용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을 변수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Hofferth, 2006). 자녀돌보기 시간은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여 정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변수이다. 자녀돌보기 시간외에도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Fedick et al., 2005), TV시청은 여가활동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고 있으며 가족과 공유할 가능성이 높기(Barnet-Verz et al., 2005)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행위 상관성을 분석하는데 자주 이용된다. 또한 TV시청은 다른 행위에 비해 제약이 크지 않고, 시간 배분이 용이한 행위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요인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시간사용을 파악할 수 있는 한국생활시간조사 3개년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의 행위와 사회경제적 지위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취학자녀의 시간사용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를 분석한다. 사회 제반 환경이 개인화되고 있는 현상이 개인의 시간사용에도 나타난다면 부모와 자녀의 시간사용의 상관성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반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현상이 자녀의 특정 행위에도 나타난다면 해당 행위 시간에 대해서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노동시간, 학교수업시간의 축소로 개인의 재량시간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세대의 시간사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부모의 행위와 인구사회학적 특징이 취학자녀의 시간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다. Ⅲ장에서는 통계

3) 자녀가 주어진 제약(소득 등)에서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한다고 할 때 전자는 부모가 자녀가 가진 자원의 절대적인 크기를 증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자녀의 제약을 완화하는 것이며, 후자는 부모가 주어진 제약 하에서 자녀의 선택을 최적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청에서 제공하는 한국생활시간조사 자료와 주요 변수를 소개하고, 분석방법을 설명한다. IV장에서는 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도출한 결과를 논의하고, 마지막 V장에서는 결론과 시사점을 제시한다.

## 2. 선행연구 검토

일반적으로 취학자녀들은 청소년 범주에서 연구가 진행된다. 청소년은 미래사회를 구성하는 핵심주체이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과 성과를 긍정적으로 유도하고 것은 사회 전반의 과제이다. 특히 청소년들은 경제·사회·문화 자원을 부모나 지역사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발달과정과 미래성과 창출에 있어 효과적으로 시간을 배분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Larson and Verma, 1999). 이에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기의 시간사용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Larson, 2001; Kuhnle et al., 2010).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시간사용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로는 청소년의 성, 연령(학교급) 인종, 계층과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학력, 소득, 경제활동 참여 여부 및 직업, 그리고 가족형태 등이 사용되고 있다(이용관, 2014).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시간사용이 TV나 게임 보다는 학습이나 독서에 많이 배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이하일 경우는 자녀의 TV 시청 시간과 컴퓨터 이용시간이, 대졸이상일 경우는 독서시간이 많으며(강인자·김혜연, 2005),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TV시청 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우찬·이운석, 2009). 또한 석박사 학력의 부모를 가진 자녀는 그렇지 않은 자녀들보다 TV시청 시간 및 게임 시간이 적게 나타났다(박민자·손문금, 2007). 부모의 소득은 자녀가 사용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데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TV시청 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민자·손문금, 2007; 김우찬·이운석, 2009). 또한 아버지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습시간은 늘어나고 TV시청 등 수동적인 여가시간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용관, 2014). 부모의 교육 및 소득수준이 자녀의 학습(책읽기) 시간과 정(+)의 상관관계를, TV시청 시간 및 게임 시간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보고되고 있는 결과이다(Guryan et al., 2008; Koiyusilta et al., 2007).

부모의 경제활동 여부나 직업은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량과 연계해 연구가 진행되었다(Bianchi et al., 2006; Presser, 2005). 자녀양육에 있어 어머니의 역할이 큰 한국에서는 어머니의 노동시장 참여 또는 부재가 자녀의 시간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어머니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녀의 식사시간, 여가시간, 대화시간 등이 감소하고(이승미·이기영, 1998), 자녀의 인터넷사용 시간과 TV시청 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성연, 2003; 정선영, 2013). 또한, 어머니의 근무강도가 강할수록 자녀의 TV시청 시간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강인자·김혜연, 2005). 주5일 수업제 도입을 이용하여 자녀의 시간배분을 분석한 연구를 보면 어머니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우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 보

다 자녀가 수면, TV시청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용관, 2014). 또한 가정에서 자녀 보호의 역할은 부모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수행하기 때문에 가족형태가 자녀의 시간사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Kalenkoski et al., 2009; Sayer, 2004) 여가 활동(Kyle and Chick, 2002)에서 이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뿐만 아니라 부모의 행위도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 특히 부모와 자녀는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부모의 시간사용은 자녀의 시간사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손일란·이윤석, 2015; Hofferth, 2006). 이는 다른 사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닮게 된다는 역할 모델(Merton, 1936)이나 부모 자녀간 취향이 수직적으로 전승된다는 취향전승모형(Volland, 2012)에 근거한다. 자녀는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 사회·문화 자본을 축적한다(Reay, 2000). 부모와 자녀의 시간사용에 대한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을 보면 자녀의 시간사용이 부모의 시간사용과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고 제시하고 있다. 특히 TV시청 등 부모와 함께 하는 활동(Anderson et al. 2001; Mancini et al., 2011)이나 부모와 공유하는 시간이 많은 가구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Binanchi et al., 2006, Cardoso et al., 2010). 한국에서 부모와 자녀의 시간사용 관계 연구는 주로 매체 이용 행위를 통해 이루어 졌다. 부모의 TV시청 시간(김우찬·이윤석, 2009), 게임 시간(정재기, 2011), 인터넷이용 시간(김은미, 2011) 등이 많을수록 자녀의 해당 시간사용도 많다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부모의 행위(시간사용) 또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시간사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연구가 부모가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부모의 행위와 사회경제적 지위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거나, 고려한다고 해도 특정 시점에 한정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최근 부모세대의 불평등이 자녀 세대로 이전되는 현상에 대한 논의가 부모의 행위 및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변화에 기인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자녀의 시간사용에 미치는 요소들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는 연구가 필요하다.

### 3. 분석 자료 및 방법

#### 3.1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시간사용 행태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청의 「한국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사용한다. 한국생활시간조사는 국민들의 생활양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하루 24시간 중 국민들이 어떠한 행동을 어느 시간대에 하고 있고 특정 행동에 할당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를 조사한 것으로, 국민의 생활방식(life style)과 삶의 질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이다. 본 조사는 1999년 9월에 조사를 실시한 이후 5년 주기로 진행되고 있다. 조사일 가운데 공식적인 법정 공휴일은 존재하지 않으며, 10일간(금요일 ~ 일요일)에 걸쳐 실시되고 있다. 응답자들은 행동분류(2014년도 기준:

9개 대분류, 42개 중분류, 138개 소분류) 항목에 근거하여 2일 동안 자신의 행동을 10분 간격으로 활동형태를 포함하여 함께한 사람, 행위 장소, 이동수단 등을 시간일지(time-diary)에 직접 기입한다.

여기서는 부모의 특성을 나타내는 핵심변수인 소득정보를 관측할 수 있는 3개년(2004, 2009, 2014) 자료를 사용하고 다음과 같이 분석 표본을 추출하였다. 부모가 존재하는 10세 이상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표본을 추출하였다. 여기서 연령이 만20세 이상인 자녀는 제외하였는데 이는 해당 표본이 예외적인 경우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의 시간사용은 방학, 시험 등에 따라 상이한 계절성이 존재하므로 모든 조사연도에 존재하는 9월 조사 표본만<sup>4)</sup>을 사용하였다.

주중에는 일터와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주중과 주말의 시간배분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특히 주체간 시간사용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주중과 주말에 따라 시간사용에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기를 분류하여 분석한다. <표 3.1>은 연도별 대상별 주중과 주말의 주요 시간사용을 보여준다. 우선 취학자녀의 TV시청 시간을 살펴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녀의 TV시청 시간, TV시청 행위자 비율<sup>5)</sup>, 행위자 TV시청 시간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sup>6)</sup> 주말 TV시청 시간이 주중에 비해 약 2배정도 많게 나타났다. 자녀가 여학생인 경우 남학생에 비해 TV시청 시간이 많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간 격차는 감소하며 2014년 주중의 경우에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많게 나타났다. 또한, 자녀의 학교급이 높을수록 TV시청 시간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급이 높을수록 학습 시간이 많기 때문이다. 취학자녀의 경우 TV시청 시간과 달리 개인유지시간(수면시간, 외모·건강·위생관리 시간 등)과 문화콘텐츠 이용시간(음악 듣기, 영화 및 공연 관람) 등 혼자 또는 지인(친구 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의 TV시청 시간의 경우, 아버지의 주말 행위자 비율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TV시청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TV시청 시간 모두 2004년을 기준으로 2009년 감소했다가 2014년에는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전반적으로 주중에는 어머니, 주말에는 아버지의 TV시청 시간이 많게 나타났다. 10세 이상 자녀돌보기(신체적 돌보기, 공부 봐주기, 간호하기, 기타 돌보기, 자녀교육관련 참여활동) 시간은 부모 모두 2004년에 비해 2009년에 증가하나 2014년에는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아버지의 자녀돌보기에 시간을 사용하는 아버지의 자녀돌보기 평균시간을 보면 2009년에 가장 적게 나타나는데 이는 2009년의 행위자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4) 생활시간조사는 1999년과 2004년에는 9월에만 조사되었으며, 이후 계절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2009년에는 2회(3월, 9월), 2014년에는 3회(7월, 9월, 12월) 조사되었다. 이로 인해 2004년 조사 이후 9월 조사 표본수가 점차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5) 행위자는 특정한 행동을 하루 24시간 중 10분 이상해서 시간일지에 기록한 한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TV시청 행위자 비율은 특정 조사일에 생활일지를 작성하는 대상 중 TV시청 행위를 시간일지에 기록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

6) 한국의 경우 재량시간의 증가가 개인유지활동시간으로 이전되어 상대적으로 여가시간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가지는데다 미디어와 대체 여가수단을 발전으로 인해 절대적인 TV시청 시간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이용관외 2014).

〈표 3.1〉 시기별 대상별 주요 시간사용 (단위: 분, %)

			주중			주말		
			2004	2009	2014	2004	2009	2014
취학 자녀	TV시청	전체 시간	64.52	42.32	32.69	167.79	141.71	125.15
		행위자 비율	76.50	59.80	49.78	93.43	91.95	85.89
		행위자 시간	84.33	70.77	65.68	179.58	154.11	145.71
		여학생	67.37	45.37	32.37	174.14	145.08	128.62
		남학생	61.94	39.54	32.98	162.46	138.80	121.78
		초등학생	85.81	60.77	49.69	188.64	163.73	153.58
		중학생	64.33	42.91	36.71	178.51	146.86	131.11
	고등학생	39.62	25.03	15.43	131.79	116.19	97.88	
	개인유지시간		618.20	625.66	633.25	677.89	712.41	747.42
	문화콘텐츠 이용시간		17.37	16.86	18.12	34.28	40.44	40.86
아버지	TV시청	전체 시간	112.46	86.45	91.66	174.42	148.90	170.28
		행위자 비율	90.97	82.77	84.65	93.24	92.13	89.34
		행위자 시간	123.62	104.45	108.28	187.07	161.62	190.60
	자녀 돌보기	전체시간	3.52	4.81	3.65	5.53	7.66	6.08
		행위자 비율	10.56	15.45	10.60	11.09	16.45	12.89
		행위자 시간	33.37	31.11	34.48	49.88	46.56	47.17
어머니	TV 시청	전체 시간	126.37	97.14	100.77	157.71	129.37	144.78
		행위자 비율	92.36	85.02	87.48	94.21	89.83	89.95
		행위자 시간	136.83	114.25	115.20	167.39	144.02	160.96
	자녀 돌보기	전체 시간	33.16	38.33	27.28	21.15	24.43	17.12
		행위자 비율	69.96	74.42	62.56	52.11	50.13	33.30
		행위자 시간	47.40	51.50	43.60	40.59	48.73	51.40
관측치 수		4,554	1,689	1,557	3,076	1,131	985	

주: 9월에 조사된 부모가 모두 있는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표본을 사용하였음. 개인유지시간은 필수생활시간인 수면시간, 외모·건강·위생관리 시간 등의 합 의미하며, 문화콘텐츠 이용시간은 음악 듣기, 영화 및 공연 관람 시간 등의 합을 의미함

자료: 한국생활시간조사 2004, 2009, 2014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여주는 변수는 학력, 소득, 직업을 사용하였다. 학력은 중졸이하를 기준으로, 고졸, 대졸 이상으로, 소득은 소득 없음을 기준으로 200만원 미만, 200-349만원, 350만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직업은 직업 없음을 기준으로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기타(농림어업숙력직, 기능직, 기계조작 및 장치조립직, 단순노무직 등)로 구분하였다.<sup>7)</sup>

7) 한국생활시간자료에서 소득에 대한 질문은 “귀하의 개인 월평균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부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은 얼마입니까?”이고 직업에 대한 질문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이다. 무급가족노동자의 경우 일을 해도 소득이 없으며, 직업이 없어도 재산 및 이전소득을 통해 소득이 있을 수 있다. 이에 소득 없음과 직업 없음의 표본은 상이하게 나타난다.

〈표 3.2〉는 연도별 부모의 특성별 취학자녀의 주중 TV시청 시간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모의 특성별 주중 자녀의 TV시청 시간 격차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2004년에는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TV시청 시간이 적게 나타났으나 2009년과 2014년도는 중졸이하 학력의 아버지를 가진 자녀의 TV시청 시간이 고졸 학력의 아버지를 가진 자녀의 TV시청 시간보다 적게 나타난다. 아버지의 소득(직업)에 따른 경향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2004년과 2009년은 소득이 높을수록(직업이 있는 경우가) 자녀의 TV시청 시간이 적게 나타났으나 2014년에는 소득(직업)이 없는 아버지를 가진 자녀의 TV시청 시간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특성에 따른 경향을 보면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TV시청 시간이 적게 나타났다. 소득이 없는 어머니를 가진 자녀의 TV시청 시간이 적게 나타나며 어머니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TV시청 시간이 적게 나타난다. 어머니의 직업에 따른 자녀의 TV시청 시간은 일정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표 3.2〉 연도별 부모의 특성별 취학자녀의 주중 TV시청 시간 (단위: 명, 분)

		2004		2009		2014		
		관측치수	시청시간	관측치수	시청시간	관측치수	시청시간	
아버지	중졸 이하	599	78.78	118	44.92	73	26.30	
	고졸	2,238	65.63	828	46.97	655	35.24	
	대졸 이상	1,717	58.10	743	36.73	829	31.24	
	소득 없음	220	79.91	27	56.67	20	23.50	
	200만원 미만	1,927	73.37	476	49.12	228	35.31	
	200-349만원	1,760	58.27	708	42.43	629	32.18	
	350만원 이상	647	49.92	478	34.58	680	32.56	
	직업 없음	177	82.26	91	64.95	28	21.43	
	전문직	1,083	54.60	418	34.09	249	27.31	
	사무직	523	55.14	334	42.60	391	29.44	
	서비스판매직	720	64.29	241	41.70	272	33.71	
	기타	2,051	70.70	605	44.69	617	36.99	
	어머니	중졸 이하	859	77.45	127	52.76	54	37.59
		고졸	2,803	63.50	1,058	43.31	807	34.39
대졸 이상		892	55.28	504	37.62	696	30.34	
소득 없음		2,267	62.25	688	36.35	544	32.96	
200만원 미만		2,003	68.41	787	48.97	750	33.00	
200-349만원		239	57.07	138	39.71	194	34.69	
350만원 이상		45	45.33	76	32.24	69	21.59	
직업 없음		1,642	61.27	579	36.99	539	34.16	
전문직		325	58.62	231	39.09	278	27.88	
사무직		316	58.96	201	39.30	197	36.14	
서비스판매직		1,308	64.96	397	50.93	318	32.39	
기타		963	73.28	281	45.94	225	32.53	

주: 9월 주중에 조사된 부모가 모두 있는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표본을 사용하였음  
 자료: 한국생활시간조사 2004, 2009, 2014

한편, 주말 취학자녀의 TV시청 시간 격차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부모의 특성별 자녀의 TV시청 시간은 주중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표 3.3〉 참고).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TV시청 시간은 적게 나타난다. 아버지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TV시청 시간은 적은 경향을 보이나 어머니의 소득에 따른 경향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부모의 직업에 따른 자녀의 TV시청 시간은 일정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2004년과 2009년에는 부모가 전문직인 경우, 2014년에는 서비스직인 경우 자녀의 TV시청 시간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반면 부모가 직업이 없거나 기타 직무를 가진 경우 자녀의 TV시청 시간이 많게 나타는 경향을 보인다.

〈표 3.3〉 연도별 부모의 특성별 취학자녀의 주말 TV시청 시간 (단위: 명, 분)

		2004		2009		2014	
		관측치수	시청시간	관측치수	시청시간	관측치수	시청시간
아버지	중졸 이하	449	174.34	92	171.20	49	136.33
	고졸	1,549	173.55	564	149.52	467	127.62
	대졸 이상	1,078	156.78	475	126.72	469	121.51
	소득 없음	176	176.53	5	178.00	8	191.25
	200만원 미만	1,248	179.41	312	158.85	142	142.54
	200-349만원	1,222	161.93	482	140.54	415	127.81
	350만원 이상	430	147.14	332	126.75	420	115.38
	직업 없음	163	178.71	31	156.77	18	134.44
	전문직	726	147.85	298	133.96	179	114.02
	사무직	409	160.51	166	139.82	255	124.00
서비스판매직	378	176.59	171	136.55	166	107.17	
기타	1,400	176.61	465	148.24	367	139.05	
어머니	중졸 이하	542	185.68	95	169.05	28	168.21
	고졸	1,937	169.64	708	147.61	563	125.15
	대졸 이상	597	145.53	328	121.04	394	122.08
	소득 없음	1,428	162.72	504	140.14	342	131.75
	200만원 미만	1,446	175.30	515	144.23	478	118.97
	200-349만원	175	156.57	78	135.90	126	129.84
	350만원 이상	27	105.93	34	140.00	39	127.69
	직업 없음	1,039	155.81	427	138.83	367	127.49
	전문직	215	152.42	115	117.22	200	125.85
	사무직	228	162.72	141	142.13	119	112.77
서비스판매직	941	167.87	273	147.25	170	124.65	
기타	653	193.55	175	155.83	129	129.46	

주: 9월 주말에 조사된 부모가 모두 있는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표본을 사용하였음  
 자료: 한국생활시간조사 2004, 2009, 2014



### 3.2. 분석 방법

부모가 취학자녀의 TV시청 시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은 다음과 같다.

$$CWT_{it} = \beta_1 F_{it} + \beta_2 M_{it} + \beta_3 O_{it} + T_i + u_{it} \quad (3.1)$$

위의 추정식에서 종속변수  $CWT_{it}$ 는 자녀  $i$ 의  $t$ 기 TV시청 시간이다.  $F_{it}$ 는 아버지,  $M_{it}$ 는 어머니의 TV시청 및 자녀돌보기 시간과 학력, 소득, 직업을 의미한다.  $O_{it}$ 는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시간사용 분석시 활용되는 통제변수로 여기서는 취학자녀의 성(남학생, 여학생) 및 학교급(초등학생, 중등학생, 고등학생), 가족형태(미취학자녀, 추가 취학자녀, 추가 성인가족의 존재여부)를 의미한다. 또한 시간사용의 형태가 요일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요일변수( $T_i$ )를 통제하였다.

그러나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자녀의 TV시청 시간은 상황에 따라 해당 활동에 시간이 관측되지 않을 경우가 존재한다. 특히 생활시간조사의 작성이 10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활동이 미미하거나 활동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될 경우 사용시간이 0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sup>8)</sup> 종속변수인 시간사용량이 좌측절단된 값을 갖게 된다. 특정 잠재변수(latent variable)의 값이 시간사용량을 결정하게 하는데, 잠재변수의 값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값의 구체적인 크기와 무관하게 0이라는 시간사용량에 관측치가 물리게 되는 모서리 해가 생긴다. 이 경우 통상최소자승(OLS) 모형은 잔차항에 관한 기본 가정이 충족되지 않아 설명변수의 효과를 추정함에 있어서 편의를 발생시킨다.<sup>9)</sup> 이처럼 개인의 선택에 의해 단절된 값을 갖는 시간사용량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에서 OLS 모형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편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빗(Tobit)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토빗모형은 다음과 같은 추정식으로 나타난다.

$$CWT_{it} = \beta_1 F_{it} + \beta_2 M_{it} + \beta_3 O_{it} + T_i + v_{it} \quad (3.2)$$

$$CWT = \begin{cases} CWT_{it}^* & \text{if } CWT_{it}^* > 0 \\ 0 & \text{if } CWT_{it}^* = 0 \end{cases}$$

위의 추정식에서  $CWT_{it}$ 는 자녀의 TV시청 시간에 대한 잠재변수로  $CWT_{it}^*$ 가 0보다 클 때 관측된다. 통제변수는 식 (3.1)과 동일하다.

8) 한국생활시간조사에서 수면시간을 제외한 다른 행태변수들은 0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취학자녀의 TV시청 시간도 주중에는 약 32.45%, 주말에는 약 8.32%가 0으로 나타난다.

9) 자녀의 주중과 주말 TV시청시간에 대한 정규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샤피로-윌크(Shapiro-Wilk)검정한 결과 주중과 주말 모두 유의확률이 0.00으로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지 않아 일반적인 OLS 모형으로는 분석이 제한된다.

#### 4. 분석 결과

본 장의 모든 회귀분석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한국생활시간조사 3개년자료의 9월 표본을 사용하여 부모가 취학자녀의 TV시청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토빗 분석한 결과이다. 모든 회귀분석에서는 개인단위 조사가중치를 사용하였으며, 시간사용에 있어 가구단위에서 이질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가구단위에서 군집화한 강건 표준오차를 제시한다.

〈표 4.1〉은 취학자녀의 주중 TV시청 시간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요인에 대한 것으로 분석결과 아버지의 TV시청 시간만이 자녀의 주중 TV시청 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TV시청 시간이 많아질수록 자녀의 주중 TV시청 시간이 증가하는데, 2014년에는 그 영향력이 사라진다. 어머니의 경우 TV시청 시간, 자녀돌보기 시간, 학력수준이 자녀의 주중 TV시청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TV시청 시간이 증가할수록 자녀의 주중 TV시청 시간도 증가하는데, 2014년에는 그 영향력이 소멸된다. 또한 2004년에는 어머니의 자녀돌보기 시간이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TV시청 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9년 이후 부터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행위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선행연구들과 상이한 결과이다. 우선 부모와 자녀의 TV시청 시간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행동의 상관성이 커지고 있다는 선행 연구(Calvo - Armengol and Jackson, 2009; Lundberg et al., 2009)들과 반대 양상을 보인다. 사람들의 상호작용은 동일한 시·공간에 있을 때 강하게 나타난다는 측면(Larson et al., 1996)에서 한국의 분석 결과는 최근 개인 미디어 기기의 확산 등으로 부모와 자녀의 공유시간이 축소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또한 최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주중 TV 시청에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과거에는 자녀의 활동에 있어 많은 부분을 부모가 가진 자원에 의존했기 때문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 활동이 양적·질적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부와 지역사회에서 참여하기 용이한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주중 활동의 양적 차이를 유발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 통제변수와 자녀의 주중 TV시청 시간과의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주중 TV시청 시간이 많게 나타나나 2014년에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학교급이 높을수록 TV시청 시간이 적게 나타나는데 이는 학업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한 여가시간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가족구성에 따라 자녀의 TV시청 시간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구성원은 대표적인 사회관계망의 요소로 사회관계망의 확장은 개인의 심리적 만족과 신체적 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참여에 대한 동기 및 연대감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Smith and Christakism, 2008). 그러나 사회관계망을 생성·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전적·시간적 자원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자원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용관·김혜인, 2015). 가구구성원 중 추가적인 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TV시청 시간이 많게 나타났다. 이는 연령대가 비슷한 자녀들은 상호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추가 성인가

족의 존재는 2009년까지 자녀의 TV시청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나 2014년에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부모뿐만 아니라 가족 전반의 공유시간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끝으로 주중 요일별 자녀의 TV시청 시간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표 4.1〉 취학자녀의 주중 TV시청 시간 분석 결과

	2004		2009		2014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아버지	TV시청 시간	0.03*	(0.02)	0.11***	(0.04)	0.04	(0.03)
	자녀돌보기 시간	-0.06	(0.09)	-0.03	(0.16)	-0.07	(0.12)
	고졸(ref.중졸이하)	-1.18	(6.46)	4.16	(11.92)	16.00	(13.61)
	대졸이상	-2.50	(7.61)	-1.58	(13.69)	15.96	(14.13)
	200만원미만(ref.없음)	-6.22	(15.98)	21.14	(23.20)	37.71	(32.06)
	200-349만원	-18.53	(16.01)	18.53	(23.70)	24.36	(32.09)
	350만원 이상	-25.55	(16.28)	13.85	(24.67)	34.96	(32.08)
	전문직(ref.무직)	-5.41	(17.42)	-18.65	(15.62)	-1.02	(25.73)
	사무직	-11.33	(17.77)	-12.06	(15.52)	-5.00	(25.78)
	서비스판매직	-4.61	(17.53)	-22.96	(16.08)	-2.19	(25.23)
기타	-0.52	(17.34)	-19.15	(14.49)	13.56	(25.39)	
어머니	TV시청 시간	0.05***	(0.02)	0.07**	(0.04)	0.05	(0.03)
	자녀돌보기 시간	-0.13***	(0.04)	-0.05	(0.05)	-0.10	(0.07)
	고졸(ref.중졸이하)	-19.72***	(5.77)	-10.55	(10.78)	-12.57	(14.06)
	대졸이상	-30.11***	(7.52)	-6.66	(12.69)	-21.06	(14.55)
	200만원미만(ref.없음)	-0.45	(5.02)	17.11	(10.91)	17.60**	(8.66)
	200-349만원	0.23	(9.19)	21.26	(15.01)	16.60	(11.64)
	350만원이상	3.93	(12.82)	-0.56	(17.76)	1.69	(16.20)
	전문직(ref.무직)	11.80	(8.22)	-10.90	(14.12)	-9.56	(10.47)
	사무직	2.76	(7.29)	1.20	(13.26)	10.67	(9.89)
	서비스판매직	2.58	(5.96)	9.42	(11.94)	-3.02	(10.74)
기타	4.24	(6.07)	-2.45	(12.26)	-3.68	(9.48)	
자녀	남학생(ref.여학생)	-5.53*	(2.85)	-14.06***	(5.06)	-7.76	(5.16)
	중학생(ref.초등학생)	-32.64***	(3.20)	-32.24***	(5.67)	-30.97***	(6.20)
	고등학생	-72.00***	(3.98)	-68.20***	(6.86)	-84.65***	(6.83)
가족	미취학자녀 있음	0.28	(5.92)	-2.10	(8.73)	0.62	(8.93)
	추가 취학자녀 존재	17.45***	(3.52)	20.44***	(6.71)	14.47**	(6.03)
	추가 성인가족 존재	16.71***	(6.05)	25.21**	(10.35)	2.88	(9.75)
	화요일(ref.월요일)	0.05	(4.57)	8.20	(7.49)	-11.04	(7.52)
	수요일	4.57	(4.50)	11.27	(7.64)	-22.56***	(7.47)
	목요일	-0.37	(4.63)	-0.41	(8.02)	-2.43	(6.90)
	금요일	0.99	(3.87)	5.97	(7.03)	3.56	(6.44)
	상수항	104.14***	(12.08)	22.80	(27.60)	-13.89	(29.39)
	관측치	4,554		1,689		1,557	

주: \* p<0.10, \*\* p<0.05, \*\*\* p<0.01을 의미함. 한국생활시간조사 3개년도(2004, 2009, 2014) 자료 중 9월 주중에 조사된 부모가 모두 있는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표본을 사용하였음.

〈표 4.2〉는 부모가 취학자녀의 주말 TV시청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토빗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전반적인 주중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주말의 시간사용 환경이 주중과 다른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실제 주5일 근무제와 주5일 수업제 등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 주말 재량시간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는 집에 있는 시간 증가로 이어져(이용관, 2014) 부모와 자녀가 시간을 공유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경우, 아버지의 TV시청 시간의 영향력은 2009년부터, 자녀돌보기 시간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특이한 점은 2004년에만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TV시청 시간이 크게 나타는 것과 2014년에만 아버지의 소득과 직업(기타)에 대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반면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의 TV시청 시간은 자녀의 TV시청 시간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계수 값의 크기는 감소한다. 어머니는 자녀돌보기 시간이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주말 TV시청 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4년에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또한, 2004년에는 어머니의 직업이 서비스판매직 또는 기타인 경우 자녀의 주말 TV시청 시간이 증가하나, 2009년과 2014년에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부모의 행위가 자녀의 주말 TV시청 시간에 미치는 영향력 감소는 앞서서도 설명한 것과 같이 주말에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둘째, 자녀의 주말 시간사용에 아버지의 소득과 직업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주말에 TV시청을 많이 하며(이용관·박찬욱, 2015), 주5일수업제 시행으로 증가한 토요일의 여가활동이 아버지의 소득수준에 영향을 받는다(이용관, 2014)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주말에는 주중과 달리 자녀의 학교학습시간이 크게 줄면서 증가한 재량시간<sup>10)</sup>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미약하다. 또한 주말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활동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가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 자체가 달라진다. 결국 자녀의 주말 시간사용은 여전히 아버지의 소득수준이나 직업에 의해 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양적인 차이도 발생되게 된다.

기타 통제변수와 자녀의 주말 TV시청 시간과의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취학자녀의 주말 TV시청 시간은 남학생이 적은 경향을 보이지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TV시청 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미취학자녀, 추가 취학자녀 또는 성인가족의 존재 여부가 모두 자녀의 주말 TV시청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주말도 가족 공유시간이 축소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중과 달리 취학자녀 사이의 주말 TV시청 시간은 상관성이 없게 나타나는데, 이는 자녀들이 주

10)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시점에 조사된 횡단면 자료의 분석 결과를 비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종단조사에서는 코호트효과, 시기효과를 각각 분리해 낼 수 있으나(Diggle et al., 2002) 횡단조사에서는 이를 파악하는 것이 제한된다. 다만 2009년 자료는 부분, 2014년 자료는 전면적으로 주5일수업제가 적용되어 있다. 즉 외생적으로 토요일 학교 수업시간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시기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시기별 변동요인이 없는 일요일 표본만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표 5〉의 결과와 유사하게 자녀의 주말 TV시청 시간에 대한 부모 행위의 영향력은 없어지는 추이를 보이고, 2014년 표본을 분석한 결과는 아버지의 소득과 어머니의 TV시청 시간만이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다.

말에 늘어난 재량시간을 개인유지나 문화콘텐츠 이용에 사용하면서(〈표 3.1〉 참조) 상대적으로 TV시청 시간이 급격하게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일요일에 비해 토요일에 취학자녀의 TV시청 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나 그 격차는 축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주5일수업제(2005년 격주, 2012년 매주) 시행으로 인해 토요일 학교 수업시간이 축소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표 4.2〉 취학자녀의 주말 TV시청 시간 분석 결과

		2004		2009		2014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아 버 지	TV시청 시간	0.04**	(0.02)	0.04	(0.04)	0.04	(0.03)
	자녀돌보기 시간	0.04	(0.10)	0.12	(0.09)	-0.14	(0.20)
	고졸(ref.중졸이하)	19.88**	(9.41)	-7.50	(18.77)	25.89	(16.79)
	대졸이상	30.48***	(11.80)	-25.77	(21.78)	26.63	(18.62)
	200만원미만(ref.없음)	19.32	(16.21)	37.71	(64.02)	-77.39**	(38.45)
	200-349만원	11.32	(16.27)	37.46	(64.70)	-107.41***	(38.60)
	350만원 이상	5.66	(17.10)	21.12	(64.40)	-120.30***	(39.12)
	전문직(ref.무직)	-25.79	(20.83)	-20.55	(31.24)	39.08	(29.21)
	사무직	-24.45	(20.64)	-22.52	(31.19)	45.01	(28.87)
	서비스판매직	-3.74	(19.47)	-39.52	(32.35)	19.67	(30.40)
기타	-20.30	(18.78)	-37.51	(31.96)	68.72**	(29.27)	
어 머 니	TV시청 시간	0.23***	(0.02)	0.23***	(0.05)	0.18***	(0.04)
	자녀돌보기 시간	-0.17***	(0.06)	-0.39***	(0.07)	-0.04	(0.06)
	고졸(ref.중졸이하)	-32.85***	(9.02)	-34.64*	(20.56)	-25.40	(17.54)
	대졸이상	-54.28***	(12.63)	-53.81**	(22.42)	-29.53	(18.85)
	200만원미만(ref.없음)	-9.30	(10.82)	-8.21	(15.45)	-19.98	(13.57)
	200-349만원	-2.41	(17.03)	-14.72	(21.47)	8.20	(17.74)
	350만원이상	-34.44	(23.50)	-0.61	(28.11)	3.71	(21.29)
	전문직(ref.무직)	24.88	(16.18)	-8.30	(19.21)	10.70	(16.04)
	사무직	22.63	(14.68)	14.25	(16.74)	7.16	(15.02)
	서비스판매직	24.67**	(12.14)	12.87	(16.99)	-0.35	(15.72)
기타	43.56***	(11.95)	1.39	(19.52)	12.74	(14.87)	
자 녀	남학생(ref.여학생)	-8.82*	(4.82)	-6.85	(6.88)	-9.42	(7.55)
	중학생(ref.초등학생)	-16.54***	(5.84)	-19.93**	(8.61)	-38.35***	(9.22)
	고등학생	-72.78***	(6.68)	-60.04***	(10.18)	-74.61***	(9.59)
가 족	미취학자녀 있음	-1.29	(13.50)	1.34	(14.67)	-14.12	(15.58)
	추가 취학자녀 존재	32.60***	(6.30)	9.54	(10.10)	13.65	(8.48)
	추가 성인가족 존재	20.38**	(10.10)	5.05	(15.62)	-11.97	(12.21)
	토요일(ref.일요일)	-61.17***	(4.58)	-27.04***	(7.22)	-13.26**	(6.60)
상수항		152.45***	(16.91)	190.49***	(61.18)	198.99***	(33.76)
관측치		3,076		1,131		985	

주: \* p<0.10, \*\* p<0.05, \*\*\* p<0.01을 의미함. 한국생활시간조사 3개년도(2004, 2009, 2014) 자료 중 9월 주말에 조사된 부모가 모두 있는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표본을 사용하였음.

## 5. 요약 및 결론

부모가 자녀의 시간사용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만을 고려하거나 특정 시기에 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간변수와 사회경제적 지위를 함께 고려하여 자녀의 시간사용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특히 사회적으로 개인의 재량시간이 증대되고 있고 다양한 활동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이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이 적어 재량시간의 배분이 용이한 자녀의 TV시청 시간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 변화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시간사용 격차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시간자료의 경우 실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간사용이 관측되지 않는 표본이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토빗 분석을 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TV시청 시간과 자녀돌보기 시간을 보면, 과거에는 취학자녀의 TV시청 시간과 정(+)의 관계가 보였으나 그 영향력은 감소 또는 소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즉 과거자료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시간사용의 상관성이 존재한다는 선행 연구들과 동일한 결과를 보이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러한 경향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인 학력, 소득, 직업을 보면, 전반적으로 취학자녀의 TV시청 시간에 미치는 영향력이 부모의 역할과 주중·주말의 시간사용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는 주중과 주말의 시간사용 환경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어머니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TV시청 시간이 감소하는 경향이나 이러한 영향력은 사라지는 모습을 보인다.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의 TV시청 시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2014년 분석결과를 보면 아버지의 소득과 직업이 자녀의 주말 TV시청시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한국의 부모와 자녀의 TV시청 시간간의 상관성 감소는 개인미디어 기기의 확산 등 사회 제반 환경이 개인 중심으로 변하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시간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녀의 발달과정에 있어 부모와 가정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이러한 역할 수행은 많은 부분이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족의 공유시간의 회복이 요구된다. 가족의 공유시간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재량시간이 동시에 증대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노동시간 단축 등 시간 정책 추진에 있어 근로자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를 포괄할 수 있도록 교육, 여가, 가족 정책의 연계가 필요하다. 또한 일-가정 양립, 저녁(여가)이 있는 삶 등의 정책을 추진시 노동시장 참여자 개인의 여가 향유권 보장과 함께 가족 단위 활동을 촉진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자녀에 대한 아버지 행위의 영향력이 어머니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자녀 양육은 여성의 부담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자녀 성장·발달 과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아버지의 자녀 양육 부담에 대한 논의는 양성평등 차원을 넘어 미래 인적자원 축적과 관련되어 논의되어야 한다. 이에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계시 아버지의 역할 수행과 자녀의 성장·발달 과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

이다.

셋째, 아버지의 소득 및 직업이 자녀의 주말 TV시청 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커지고 있어 자녀의 여가활동에 있어 경제적 자원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가 자녀 성과뿐만 아니라 시간사용의 양과 질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확대해서 보면 부모세대의 불평등이 자녀세대로 이전되는 현상은 미래의 성과뿐만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재량시간을 이용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질적·양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부모의 소득에 의해서 학습활동뿐만 아니라 문화·사회 활동 시간의 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정부와 지역사회 관심이 필요하다.

자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시간사용의 차이가 날뿐만 아니라 부모의 미치는 영향력도 차이가 존재(Signorielli and Lears, 1992)한다. 이에 보다 구체적인 청소년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세분화하여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분석자료 상의 제한점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부모의 행동변수로 부모의 TV시청 시간과 자녀돌보기 시간을 사용했으나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나 관심도 등을 관측할 수 있는 변수가 존재한다면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을 보다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녀의 행동변수로 사용한 TV시청 시간은 선행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기서는 TV시청이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활동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TV시청은 프로그램에 따라 긍정적(Anderson et al., 2001; Kirkorian et al., 2008) 또는 부정적인 효과(Ennemoser and Schneider, 2007; Hancox et al., 2005)가 상존한다. 즉 학습이나 교양 프로그램인 경우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오락 및 폭력성이 높은 프로그램의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특정 행동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양면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행동의 내용적인 부분도 고려한다면 자녀의 영향요인에 대한 보다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취학자녀들은 청소년이라는 시기적 특성상 학교에서의 시간, 또래와 보내는 시간 등이 많다는 점에서 이들 집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4월 19일 접수, 2017년 6월 20일 수정, 2017년 7월 24일 채택)

### 참고문헌

- 강인자, 김혜연 (2005). 제주도 초등학교 학생의 생활시간 사용 및 만족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9(4), 1-19.
- 김우찬, 이윤석 (2009). 부모가 자녀의 TV시청시간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TV시청시간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0(1), 29-55.
- 김은미 (2011). 부모와 자녀의 인터넷 리터러시의 관계: 인터넷 리터러시는 대물림되는가. <한국언론학보>, 55(5), 155-177.
- 박민자, 손문금 (2007).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와 관련된 생활시간사용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19(2), 93-120.
- 손일란, 이윤석 (2015). 부모가 청소년의 교제시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8(2), 33-55.
- 이용관 (2014). 주5일 수업제 도입이 청소년의 시간사용에 미치는 영향, <노동경제논집>, 37(2), 1-28.
- 이용관 (2016).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대학생 자녀의 시간사용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논총>, 32(1), 159-190.
- 이용관, 김혜인 (2015). 연령별 사회관계망과 문화관람 활동의 관계 분석, <소비자문제연구>, 46(3), 77-100.
- 이용관, 박찬욱 (2015). 콘텐츠 분야 소비트렌드 분석 - 이용시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이용관, 박찬욱, 박종웅, 이윤경 (2014). 콘텐츠 분야 소비트렌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이승미, 이기영 (1998). 부모와 자녀의 공유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123-136.
- 조성연 (2003). 부모양육방식과 태도 및 부모와의 대화시간에 따른 청소년 인터넷 사용시간, <청소년복지연구>, 5(2), 47-59.
- 정선영 (2013). 어머니의 취업이 청소년 자녀의 비만 및 과체중에 미치는 영향: TV시청과 인터넷 이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41, 39-66.
- 정재기(2011). 인터넷, 교육열망,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조사연구>, 12(3), 123-142.
- Anderson, D. R., Huston, A. C., Schmitt, K. L., Linebarger, D. L. and Wright, J. C. (2001). Academic Achievement.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6(1), 36-66.
- Barnet-Verzat, C., Pailhé, A., Solaz, A. (2005). Being together or entertaining together? The impact of children on couples' activity synchronization. workingpaper.
- Bianchi, S. M. (2000). Maternal employment and time with children: Dramatic change or surprising continuity? *Demography*, 37, 401-414.
- Bianchi, S. M. and Robinson, J. (1997). What did you do today? use of time,



- family composition, and the acquisition of social capita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332-344.
- Bianchi, S. M., Robinson, J. P. and Milkie, M. A. (2006). Changing rhythms of American family lif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Calvó-Armengol, A. and Jackson, M. O. (2009). Like father, like son: social network externalities and parent-child correlation in behavior. *American Economic Journal: Microeconomics*, 1(1), 124-150.
- Cardoso, A. R., Fontainha, E. and Monfardini, C. (2010). Children's and Parents' Time Use: Empirical Evidence on Investment in Human Capital in France. *Review of Economics of The Household* 8(4), 479-504.
- Diggle, P. J., Patrick J. Heagerty J. P., Liang, K. Y. and Zeger, S. (2002). Analysis of Longitudinal Data. NY: Oxford University Press.
- Ennemoser, M. and Schneider, W. (2007). Relations of television viewing and reading: Findings from a 4-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9(2), 349-368.
- Fedick, C. B., Pacholok, S. and Gauthier, A. H. (2005). Methodological issues in the estimation of Parental time-Analysis of measure in a Canadian time-use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Time Use Research*, 2(1). 67-87.
- Guryan, J., Hurst, E. and Kearney, M. (2008). Parental Education and Parental Time with Childre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2(3), 23-46
- Hancox, R. J., Milne, B. J. and Poulton, R. (2005). Association of television viewing during childhood with poor educational achievement. *Archives of Pediatrics & Adolescent Medicine*, 159(7), 614-618.
- Hofferth, S. L. (2006). Residential father family type and child well-being: Investment versus selection. *Demography*, 43, 53-77.
- Juster, F. T. and Stafford, F. P. (1991). The Allocation of Time: Empirical Findings, Behavioral Models and Problems of Measurement.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71-522.
- Kalenkoski, C.M., Ribar, D.C. and Stratton, L.S. (2009). How Do Adolescents Spell Time Use? IZA Discussion Paper No. 4374.
- Katherine, M. (2007). The busy lives of teenagers. *Perspectives*, 8(5), 5-15.
- Kirkorian, H. L., Wartella, E. A. and Anderson, D. R. (2008). Media and young children's learning. *The Future of Children*, 18(1), 39-61.
- Koivusilta, L. L., Lintonen, T. P. and Rimpela, A. H. (2007). Orientations in adolescents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 digital Divide by Socioeconomic background, educational career, and Health. *Scandinavian Journal of Public Health* 35, 95-013
- Kuhnle, C, Hofer, M. and Kilian, B. (2010). The relationship of value orientations, self-control, frequency of school-leisure conflicts, and life-balance in

- adolescence.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3), 251–255.
- Kyle, G. and Chick, G. (2002). The social nature of leisure involvement,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4 (4), 426
- Larson, R. W. (2001). How US children and adolescents spend time: What it does (and doesn't) tell us about their development.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0(5), 160–164.
- Larson, R. W., Moneta, G. H. and Duckett, E. (1996). Changes in adolescents daily interactions with their families from 10 to 18: disengagement and transform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2, 744–754.
- Larson, R. W. and Verma, S. (1999). How children and adolescents spend time across the world: work, play, and developmental opportunities. *Psychological bulletin*, 125(6), 701–736.
- Lundberg, S., Romich, J. L. and Tsang, K. P. (2009). Decision-making by children. *Review of Economics of the Household*, 7(1), 1–30.
- Mancini, A. L., Monfardini, C. and Pasqua, S. (2011, October). On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Reading Habits in Italy: Is a Good Example the Best Sermon? IZA Discussion Paper #6038
- Merton, R. K. (1936). 'The Unanticipated Consequences of Purposive Social Ac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6), 894–904.
- Presser, H. B. (2005). Embracing complexity: Work schedules and family life in a 24/7 economy. In S. M. Bianchi, L. M. Casper, R. B. King (Eds.), *Work, family, health, and well-being* (pp. 43–48).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Reay, D. (2000). A Useful Extension of Bourdieu's Conceptual Framework?: Emotional Capital as A Way of Understanding Mothers' Involvement in Their Children's Education?. *The Sociological Review*, 48(4), 568–585.
- Robinson, J. P. (1996). Time, housework, and the rest of life.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 17(3), 213–229.
- Sayer, L., Bianchi, S. and Robinson, J. (2004). Are Parents Investing Less in Children? Trends in Mothers' and Fathers' Time with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0(1), 1–43.
- Signorielli, N. and Lears, M. (1992). Children, Television and Conceptions about Chores: Attitudes and Behaviors. *Sex Roles*, 27(3–4), 157–170.
- Smith, K. P. and Christakis, N. A. (2008). Social networks and health. *Annual Review of Sociology*, 34, 405–429.
- Volland, B. (2012). The Vertical Transmission of Time Use Choices. *Papers on Economics and Evolution*, 1205, 1–29.

# Changes in Impact of Parents' Behavior and Socioeconomic Status on School-Age Children's TV Watching Time

Yong-Kwan Lee<sup>1)</sup> · Jungwon Ko<sup>2)</sup>

## Abstract

Time spent in childhood affects multiple aspects of adolescent development. This study examines changes in impact of parents' behavior(child care, watching TV) and socioeconomic status on school-age children's TV watching time using Korea Time Use Survey(2004, 2009, 2014) data from Korea Statistics. Tobit model analysis shows that parents' behavior(child care and watching TV) reduce influence on their children's TV watching time because parents of decreasing amount of time spent with family(parents-children). While the influence of father's income is larger, whereas the influence of mother's education level is disappear to school-age children's TV watching time that give implication about growing economic role in child care. This study shows tha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family sharing time through time policy considering various classes in order to strengthen the role of family. And It also suggests that policies are needed to mitigate economic constraints on children's time use.

Key words : Parents, School-age children, TV watching time, Child care Socioeconomic status

---

1) (Corresponding author) Research Fellow,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154 Geumnanghwa-ro Gangseo-gu, Seoul 07511, Korea. E-mail: lucasiet@kcti.re.kr

2) Researcher,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154 Geumnanghwa-ro Gangseo-gu, Seoul 07511, Korea. E-mail: gojudith@kcti.re.kr